

# 쯔쯔가무시병 매개 털진드기의 계절적 소장에 관한 조사연구

김영훈, 박재갑, 조상문, 남기진, 하강자, 장명호, 최한주,  
정종화, 차취근, 강영훈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역학조사과

쯔쯔가무시병의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계절적 소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진주, 함양, 산청 등 경남도내 18개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설치류를 직접 포획하여 이에 기생하는 털진드기를 채집하여 주요 종의 개체군 밀도와 계절적 분포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포획한 야생설치류는 총 1,415마리로 등줄쥐(*Apodemus agrarius*)가 1,330마리(94.0%)로 절대 우점종이었고, 땃쥐(*Crocidura lasiura*) 32마리, 갈밭쥐(*Microtus fortis*) 24마리, 생쥐(*Mus musculus*) 24마리, 시궁쥐(*Rattus norvegicus*)가 5마리였으며, 총 1,415마리 중 1,108마리에 털진드기가 기생하고 있어 78.3%의 기생률을 보였다.

야생설치류로부터 총 101,360개체의 털진드기가 채집되어 71.6개체의 chigger index를 보였으며, 종류별로는 Trombiculidae과의 *Leptotrombidium*속 7종, *Euschoengastia*속 1종, *Neotrombicula*속 4종, *Cheladontata*속 1종, *Walchia*속 1종, 그리고 Leeuwenhoekiiidae과의 *Shunsennia*속 1종으로 총 2과 6속 15종의 털진드기가 동정되었다.

*L. orientale*가 38,199개체(37.7%)로 우점종이었고, 국내 쯔쯔가무시병의 매개체인 *L. pallidum*은 22,875개체(22.6%), *L. scutellare*는 14,028개체(13.8%)였다. 그리고 *L. palpale*는 11,003개체(10.9%), *L. zetum*은 6,579개체(6.5%)였으며, *Walchia comataxilla*와 *Shunsennia tarsalis*는 각각 9개체, 8개체만 채집되어 본 조사지역에서는 희귀종으로 분류되었다.

개체군 밀도의 계절적 분포를 살펴보면 월별 기생률은 11월이 연중 최고의 기생률을 보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3월에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였으며, 6~8월에는 낮은 분포를 보이다 9월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털진드기의 종류별로는 *L. orientale*는 연중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L. pallidum*은 3월과 11월, *L. scutellare*는 10월, 11월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종별 최고 기생률을 나타낸 달은 *L. orientale*가 4월에 58.7개체, *L. pallidum*이 11월에 46.0개체, *L. scutellare*가 10월에 39.9개체, *L. palpale*는 11월에 21.7개체로 가장 높은 기생률을 보였다. 월별 종다양성은 11월에 14종으로 가장 많았고, 10월에 13종, 12월에 11종이 분리되었다.